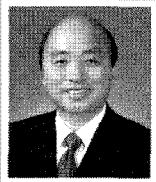




WATER
FOR
FUTURE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물관리 아·태 지역 국제회의 개최



김 정 곤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수석연구원
jkkim@kwater.or.kr



양 해 진 |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원장
yanghj@kwater.or.kr



김 경 수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국장
kskim83@mofat.go.kr

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되고 통합된 물관리 협력방안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물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발휘를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수자원 개발·관리 및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목)과 2일(금) 양일간에 걸쳐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물관리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외교통상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가 공동 주최하고,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 물 관련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는 물론, 권위 있는 국제단체의 전문가 및 국내의 학계·정부·산업계 물 관련 전문가 18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을 펼쳤다.

1. 서론

세계은행은 전 세계 인구 중 11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26억 명 가량이 기본적인 위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2005년 29억 명에서 2030년에는 39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인구 증가, 산업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체제는 미비

2. 행사 개요

기후변화 시대의 물관리를 위한 아·태지역 각국의 물관리 정책사례와 각국이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아·태지역 녹색성장을 위한 물관리 전략을 논의한 본 국제회의에 참가한 주요 참여 국가 및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 중국, 일본, 몽골, ASEAN 회원국 일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

- 핀, 태국, 베트남), 중앙아 4개국(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총 16개국 고위급 대표단
- 유엔 (UN), 유엔아태 경제 사회 위원회 (UNESCA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 세계물위원회(WWC), 세계물파트너십(GWP)

본 국제회의에서는 아·태지역 각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에 관하여 기술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① 기후변화와 MDGs 등과 관련한 아·태지역 물

문제의 현황은 어떠한가?

- ② 아·태지역 각국이 효과적인 물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③ 녹색성장을 위한 물관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 ④ 아·태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행동지향적인(action-oriented) 국제협력 전략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주요 주제들로 발제된 5개의 학술세션을 비롯하여 세계물개발보고서 한국어판 출판기념식과 시화호 조력발전소·시화생태습지 현장시찰 등으로 구성된 본 국제회의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Date	Schedule
July 1 (Thurs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ning S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deo Presentation on Water Manag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Welcome Speech by H.E. Jong-Hoon Kim - Congratulatory Remark by Dr. Loic Fauchon - Keynote Speech by Dr. Hyoung-Kook Kim ● Session I : Climate Change, MDGs & Water in the Asia-Pacific Reg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imate Change and Water - MDGs and Other International Water-related Goals and the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 - Green Growth: Addressing Water Challenges in Asia and the Pacific ● Session II : Status of Water Management and Challenges Ahe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tus of Water Management and Challenges in in the Asia-Pacific Region - Water Environment Policy of Korea ● Session III : Green Growth and Water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Food and Agriculture - Eco-efficient Wat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Green Growth - Japan's Water Management for Green Growth -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Green Growth of Korea
July 2 (Fri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ssion IV :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trategies for Water Mana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ancing for Water Mana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Knowledge Sharing on Agriculture Water Manag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 Develop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trategies for Water Management through International Network - UNDP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trategies for Water Management in Asia-Pacific ● Session V : Wrap-up ● Celebration of the Publication of the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Korean Edition ● Field Tr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ihwa Reed Wetland Park and the World's Largest Tidal Power Plant



3. 행사 주요결과

- 세션 주요내용

첫날 개회식 행사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정책 홍보를 위한 동영상상영으로 시작되었다(그림 1). 이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에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발족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주변 개발도상국들의 수자원관리기술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Loic Fauchon 세계물위원회 위원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Hydro-friendly

Development”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블루이코노미, 물 재이용등 이 앞으로의 수자원 환경 및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초연설에서 기후변화의 예상 피해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물임을 강조하고 녹색성장은 중요 국정과제로써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예방, 가뭄대비, 맑은 물 인프라 구축을 위한 4대강 살리기 국가프로젝트 추진 중이며 4대강 살리기와 물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하였다(그림 2).

개회식후 주요 귀빈들은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부스를 돌아보았다. 전시부스는 주관기관인 K-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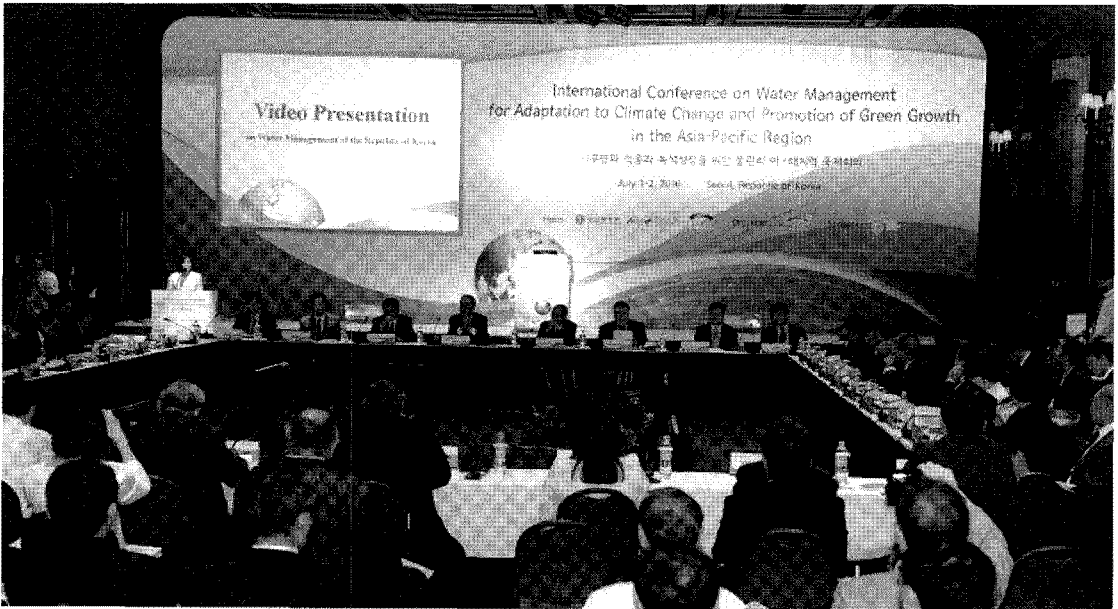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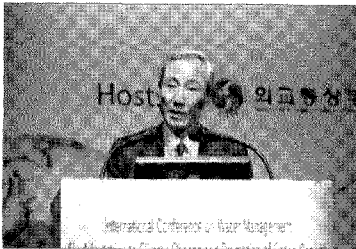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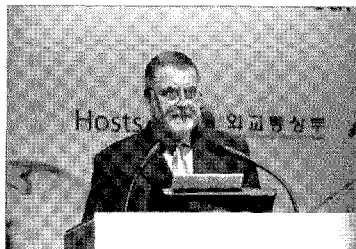


그림 1. 회의장 전경



개회사: Jong-Hoon Kim,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축사: Loic Fauchon, President, World Water Council



기조연설: Hyung-Kook Kim, Chairperson,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Republic of Korea

그림 2. 개회식 주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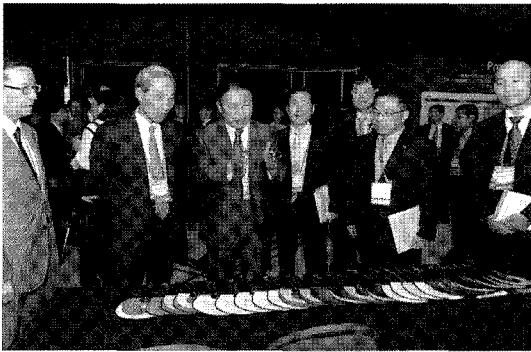


그림 3. 전시부스 참관

와 물관련 해외진출에 관심이 많은 두산중공업, (주)웅진케미칼 및 (주)이산이 참가하였다(그림 3).

아·태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물을 다룬 세션 I에서는 Peter Koefoed Bjørnsen UNEP-DHI 물·환경센터 소장이 기후변화와 물에 관하여, Tariq Banuri UN DESA 지속가능발전국장이 MDGs 및 여타 물관련 국제목표의 이행 현황을, 그리고 정래권 UNESCAP 환경·지속가능발전국장이 아·태지역에서의 물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물문제로 하천유량변화, 수질악화, 및 유사관리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통합수자원관리(IWRM)를 통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각국의 물 관리 현황과 과제를 다룬 세션 II에서는 한국의 수질관리 정책에 대한 소개와 중국 베트남 등 본 행사에 참여한 아·태지역 각국의 수자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소개 및 토론을 하였다. 본 세션에서 수자원 분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5~10년의 장기 로드맵을 통한 지역 기반의 계획 및 국가 간 상호협력은 강력한 파트너십에 기초하며 회원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의 역할이 커지게 됨을 강조하였다.

녹색성장과 물 관리를 다룬 세션 III에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 소개, 아태 지역에서의 식량 및 농업 및 녹색성장을 위해 생태적으로 효율적인 물관리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 졌다. 본 세션에서는 농업용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도 향상을 통한 녹색성장 추구하고 생태효율성을 강조한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박재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재정지원팀장은 한국의 하천개발 사례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 및 효과를 소개하였다.

둘째 날에는 Loic Fauchon 세계물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아·태지역에서의 물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다룬 세션 IV가 개최되었다. 제4세션에서는 국제공유하천 등 물분쟁에 대비한 국제 네트워크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사업측면에서의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유역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김경수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이 진행한 Wrap-up 세션에서는 본 행사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 날 오후에는 녹색성장 모델로서 2002년 개장한 대규모 인공생태습지인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및 금년 말 완공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답사하는 기회도 가졌다(그림. 4). 라오스 폰쎌나 라오스 장관 등 견학에 참여한 각국의 주요 인사들은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림 4.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및 시화조력발전소 시찰

아울러 본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첫날 이만의 환경부장관 주최 오찬(그림 5),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주최 만찬(그림 6)과 이틀날 김건호 K-water사장 주최 오찬 및 환송 만찬이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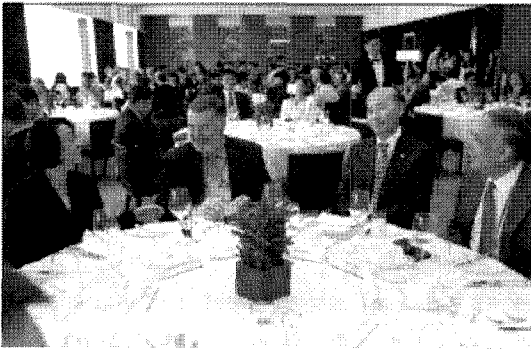


그림 5. 이만의 환경부장관 주관 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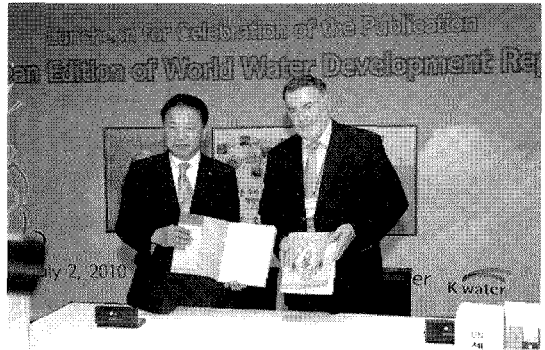


그림 7. 세계물개발보고서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그림 6.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주관 오찬

- 세계물개발보고서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본 행사 기간 동안에 K-water는 「세계 물 개발 보고서(WWDR: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한국어판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였다(그림 7). 세계물개발보고서는 제2차 세계물위원회(WWF)에서 구성된 WWAP(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발간되는 책으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물과 관련된 정책의 형성이나 투자의 집행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 세계 물관련 전략수립이나 사업실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6개국 국가 언어(영어, 아라비아어, 중국, 프랑스,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발간되고 있는데, K-water는 UNESCO-IHP의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발행된 세계물개발보고서에 대한 번역을 추진하였다. 한국어판 세계물개발보고서는 이번 한국어판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올 7월말에는 시판용 출간 및 판매를 계획하

고 있다.

보고서는 총3권으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st Edition('03) :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 2nd Edition('06) : Water a Shared Responsibility
- 3rd Edition('09) : Water in a Changing World(with Case Study)

4. 맺음말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물문제를 해결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30%를 넘는다. 이는 우리 인류가 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관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인 기후변화는 글로벌 이슈이고, 이러한 글로벌 이슈는 어느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동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아직까지 효과적인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아·태지역에서의 물문제의 심각성과 수자원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이룩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아·태지역 국가들은 시급히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이는 쉬운 일이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을 위한 보다 긴밀한 국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아·태지역에서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는 특히 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회의는 아태지역 각국과 물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협력관계 구축 및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도출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관련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외에도,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얻은 가치적인 성과는 다양하고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WWC 위원장은 한국의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유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주한남아공 대사를 비롯한 각국의 주요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ADB 대표로 참석한 Arjourn Thapan 총재 수석고문은 K-water가 현재 추진 중인 ADB발주 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 Citarum강 유역 수자원 환경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하수처리 및 수자원 관련 교육훈련 등에 K-water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태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청신호라 판단된다. 🌊